

경제 프리즘

조폐공사, 신형 등록증 발급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가 어려운 외국인 관련 신형 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발급하는 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3가지 종류다.

새로운 등록증은 전면에 정부 부처의 태극문양 로고를 넣고 다양한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했다.

공사가 개발한 렌티아이(Lenti-Eye) 보안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인쇄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수 인쇄기술을 활용해 일반 조명에서 보이지 않는 문자와 문양이 자외선을 비추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해외구직자 취업 성공률 22%

지난해 해외 구직자 10명 가운데 약 8명은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종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 취업자 수는 총 5,118명으로 전체 구직등록 인원(2만 2,997명)의 22.3%에 그쳤다.

해외 취업자 수가 2014년 1,679명에서 지난해는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취업 성공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셈이다.

취업 국가별로는 지난해 일본이 1,4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079명)과 싱가포르(505명)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호주(385명)와 베트남(385명), 중국(268명), 인도네시아(123명) 등의 순이었다.

농협 조합장 포럼 개최

농협이 11일 대전ICC호텔에서 '2018 조합장 포럼'을 개최했다.

'100년 농협으로 가는 길, 농업·농촌·농업인과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조합장과 농협 임원 및 집행간부,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조합장과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농협의 근본은 농업·농촌·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내집은 내가 꾸민다” 홈퍼니싱 열풍

1인가구·리모델링 수요↑ 시장·매출 급성장 지역 유통업체,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최근 집을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Home Furnishing)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집안을 감성적이고 아늑하게 꾸밀 수 있는 가구부터 소품들이 고객들의 큰 인기를 끌자 지역유통업체도 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광주신세계의 생활부분 매출을 분석한 결과 6년 4.7%, 17년 2.4%에 이어 올해도 9월 기준 4.1% 성장, 홈퍼니싱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홈퍼니싱 열풍속에 광주신세계는 12일부터 18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과 지하 1층 생활 본 매장에서 한층 우아해진 리빙트렌드를 찾아가 답안 신세계만의 리빙 페스티벌 '메종 드 신세계'를 개최한다.

'디자인벤처스'의 '스탠드 1450 4인 식탁세트' 154만원(10세트 한

정), '레노마홈'의 '체이스 모달차렵 세트(Q)' 30만 3,000원(100세트 한정), '세사'의 '매튜 침구세트(Q)' 11만 9,000원(50세트 한정), '발레로이&보호'의 '디자인나이프 공기대접 세트(2인)' 15만 4,000원 등이 있다.

'실리트'와 '템퍼'는 창립축하 특별전을 진행한다.

'실리트'는 창립 97주년을 맞아 실리칸 냄비와 스테인리스 냄비를 각각 최대 75%/70% 할인해 판매한다. 인기 품목인 '프리모 스테인리스 냄비'를 3~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템퍼'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Supreme 매트리스(S)', '타퍼 7cm(S)', '여행용 세트(매트리스+베개)'를 각각 20% 할인된 192만원/96만원/56만원에 판매하며,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60만원 상당의 협박을 증정한다.



최근 가구나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유통업체도 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인기 도자기 브랜드인 '아사셀렉션', '코렐'의 특집전도 열린다. '아사셀렉션'은 매장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품목의 할인율은 '분짜라우캐슬/루전' 50%, '실버데일' 60%, '제시포터리' 70%, '큐티홀로아 블랙' 50%, '벨로아이녹스'를 40%이다. '코렐'은 행사 기간 중 전

상품을 30~50% 할인 판매(일부품목 제외)하며, 특히 '핑크데이지'와 '야생화' 라인을 각각 50%,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날부터 14일까지 가전, 리빙 제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는 삼성·LG전자 TV, 냉장고, 스타일러 등 일부 품목에 한해 10~

20% 할인한다. 모바일상품권, 브랜드별 자체 포인트 적립, 보상판매 등 추가 혜택을 더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8층 홈리빙 전문관에서는 '홈인테리어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텀퍼 제품이 전품목 10~20% 할인되며, 데코하우스가 30~60% 할인하는 등 다양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한전 뇌물·향응수수 적발 최다 '불명예'

22개 산자부 산하기관 중 40%...적발액 10억 육박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뇌물과 향응수수 적발 인원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 산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전체 적발된 234명 중 94명, 1,409건 중 562건으로 40%를 차지, 금액 또한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한 부장

급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8,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뇌물 수수가 전력공기업에 집중된 것은 절대값 위치에서 비위 유혹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삼아 돼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선욱 기자



보해양조 이세운(왼쪽) 생산본부장과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가운데) 황보욱 노조위원장(오른쪽) 11일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 지역인재 장학금 기탁

보해양조 노사가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11일 장성군청에서 지역인재 장학금 200만원을 장성군 장학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이세운 생산본부장, 황보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지역인재들의 학습여

건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장성 생산본부는 올해 상반기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장학금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보해양조 노조는 노조발전기금을 활용해 장성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함께 기탁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 5년간 55억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관리부실로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이 55억 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8,440건이며 액수는 55억 1,600만원이라고 11일 밝혔다. 과다청구 원인으로 ▲요금 계산 착오 22.5% ▲계기 결선 착오 19% ▲계기 고장 14.6% ▲배수 입력 착오 8.7% 순으로 나타났으며 1건당 평균

과오금 금액은 약 65만원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는 같은 기간 262만 2,702건, 1,438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정83 재물손괴 등 피 고 인 김 비 호

위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9. 10 판사 김성준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거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월간 전남매일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11월 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사정상 급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